

무시케와 짐나스티케를 통한 민병선 읽기¹⁾

201923784

영어영문학과

민병선

1. 들어가며

본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 '국가'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상국가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호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과 같은 정치적 논의와 정치철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이상국가 설립을 위한 최선의 통치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까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문학, 체육, 음악 등과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더불어 이러한 것들이 가진 이점과 특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단지 '통치자'만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만인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더욱 다양해졌다. 게다가, 현대 교육은 개인의 흥미와 기호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의 플랫폼이 많아졌기에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늘날의 교육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으로써 사용하고자,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교육적인 요소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울러 국가에서는 모든 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이야기하였는데, 한 가지에 치우친 교육은 이로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선, 전자에 있어서 음악으로서의 무시케와 신체 훈련으로써의 짐나스티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단일적인 교육도 이로움이 많다고 반박하고 싶다. 필자는 오늘날의 '나'를 이룬 것은 두 개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것들로부터 방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병행하여 조화를 이룬 시기도 겪어보았다.

따라서 필자는 두 가지 질문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무시케와 짐나스티케가 어떻게 '민병선'이라는 인물을 탄생시켰는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일종의 성찰의 연대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단일적 교육과 균형적 교육이 필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필자가 본글에서 의미하는 무시케는 음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짐나스티케는 웨이트 트레이닝,

1) 무시케와 짐나스티케, 두 가지 관점만을 통해 해당 인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인물을 '읽다' 라고 표현함은 일종의 wit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러닝, 등산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린다.

2-1 중학교 무시케 입문 시기

필자가 '진정한' 의미의 무시케 교육에 입문한 것은 중학교 때이다. 이 시기에 무시케 교육이 발휘한 힘을 이야기하려면 가정 상황을 배경적 맥락으로 삼아야 하므로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다. 당시, 필자에게는 가정을 등지고 사라진 아버지가 있었다. 그의 빈자리는 청소년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컸기 때문에 '게임'으로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했었다. 게임은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만족감을 유발하므로, 필자가 '실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밴드부에 소속되어 있던 친구가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고 그 날 처음으로 기타라는 악기를 잡아보게 되었다. 6현의 아르페지오에서 퍼지는 고운 따듯함, 그리고 때로는 강렬한 찰랑거림을 선사하는 스트로크는 사춘기를 겪고 있던 필자를 휘어잡기에는 충분했다. 바로 이때부터 친구에게 기타를 빌려 독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정식적인 무시케 입문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게임'에서 빠져나와 결핍된 욕구를 건강한 방향으로 채울 수 있었던 시기이다. 목표 의식이 없었던 인생에서 목표가 생겼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열정과 뜨거움, 도전 정신 같은 것 긍정적인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크로매틱이라는 반음 단위의 스케일을 연습하며 코드를 연습하였고, 이내 입문자를 위한 곡들을 연습하였다.

1년 뒤, 나뭇잎의 수련을 거친 뒤에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에 설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무대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주변의 반응도 좋았었기에 인생에 있어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로봇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내면의 감정선이 발달 되는 것이 느껴졌다. 실제로, 이 무렵부터는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음악의 선율을 느끼며 아름다운 화음을 선망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아이돌로 삼아 그들의 곡을 카피하며 닮아가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는 분명하게 플라톤이 말한 무시케의 교육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시케의 목적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인격 함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했듯이, '일정 부분'만이 달성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격적으로는 함양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무시케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 자체가 모방을 좋아한다는 점과 그 영혼이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는 점을 토대로 두고 있다. 즉, 좋은 환경에 최대한 어릴 때부터 노출시켜야 된다는 맥락이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환경에 노출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나쁜 것에 동화되기 마련이다. 이 시기 필자는 '펑크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만 고집하였다. 본 장르는 1970년대쯤 영미권에서 탄생한 락의 한 장르로, 기존에 있던 '락'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사로는 사회와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주로 하였고, 히피족과 마약 문제 등이 결합된 반사회적 기질이 강한 음악이었다. 게다가 4가지 파워 코드 진행과 강렬한 얼터너티브 사운드가 주인 '쉽고 자극적인' 음악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필자는 성격적으로 까칠하고 비관적인 태도가 생겼고, 언행도 상당히 거칠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격적 함양은 덜되다 못해 실패한 것이다.

2-2 고등학교 무시케 방향기

무시케를 통해서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 모두를 얻은 채 고등학생이 되었다. 앞서 이야기했듯, 필자에게는 꿈이나 희망, 목표 의식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인생에 대한 활력이 없었다. 그나마 음악을 통해서 자존감과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 당시 필자는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딱히 잘한다고 생각한 것도 없었기에 음악 계열 학과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필자와 생각이 달랐다. '예체능' 계열은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막연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있었기에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뿐인 아들이 '따따라'가 되는 것이 싫다며 극구 반대하였다. (어머니는 필자가 '사'가 들어가는 직업을 하길 원했고, 특히나 '목사'가 되기를 희망하셨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꿈에 대한 모독과 반대를 들었으니, 다시금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미 중학생 때부터 음악적 기질을 통해서 반항적인 성격이 갖추어진 상태였기에 매일 같이 가치관 대립이 일어나면서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결국,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나를 다시 게임 속으로 빠지도록 만들었다. 당시에는 정말 그것만이 내가 '나'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었기에 극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졌다. 그렇게 음악 재생 리스트에는 자연스럽게 펑크 락과 같은 신나는 장르의 곡들이 빠지게 되었고, 슬픈 곡들이 범람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 게임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눈에 들어온 아티스트가 있었다. 일본의 기타리스트로서 현란한 테크닉으로 연주하는 Okapi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곡들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힘이 생겼고, 똑같이 연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혼이 아직은 좋은 것을 모방하기 위한 에너지가 남아있던 때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또다시 반발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이내 기타를 다시 잡게 되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은 그의 연주를 거의 흡사하게 소화해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놀랐던 것은 원곡자인 Okapi가 댓글을 통해 연주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었던 일이다. 그때부터 스스로의 가능성을 조금씩 엿볼 수 있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2-3 군대에서의 짐나스티케 개관기

기타를 잡기 시작한 뒤로 해가 몇 번 지나갔다.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개인 SNS를 통해서 연주를 선보이면서 제법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얻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 입대해야 하기에 잠시 기타를 케이스에 넣어두어야 했다. 필자는 의무 경찰에 입대하였다. 웹툰 'Peak'²⁾를 통해서 경찰 산악구조대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목숨을 걸고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에 매료되어 이 한 몸을 국가에 충성하는 데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산악구조대는 지원 후 면접과 체력 검정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체력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짐나스티케 개관기를 맞이하였다. 사실 입대 전부터, 미적인 부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자 운동을 하면서 관리하는 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플라톤이 말한 바를 위함은 아니었다. 플라톤이 말하는 짐나스티케의 목적은 '기개'를 '용기'의 덕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인데, 필자는 미적인 결여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악구조대에 차출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운동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달랐다. 웹툰 'Peak'를 보면서 극한의 상황에서 노출될 때 힘을 발휘하는 '체력'과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면접과 체력 검정을 모두 마친 뒤 필자는 산악구조대원이 되었다. 그러나 한 층 더 발전하게 된 계기는 구조대원이 된 뒤에 있다. 차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걷기조차 힘든 날이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던 날이었는데 상황실로 급하게 전화 한 통이 왔다. 정상에 심정지환자가 발생한 것이었다. 구조대로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200m 남짓이었다. 기상 악화로 헬기는 뜰 수 없던 상태였다. 그렇기에 구조대는 재빠르게 각종 장비를 챙겨 눈길을 휘저으며 위로 올라갔다. 정상에 도달하고 쓰러진 사람이 보였다. 이미 죽은 뒤였다. 첫 신고 출동이었고,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이 죽었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속이 거북하고 입안에서 피 맛이 감돌았어도 급하게 뛰어갔지만 심정지환자를 살리지 못했다. 그 날 느꼈던 감정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신체적으로 더욱 수련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더욱 빠르게 출동지로 향해서 다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빠르게 구조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외에도 해발고도 600m에서 야간에 산의 초입까지 환자를 업고서 이동해야 한다가나, 등산로가 아닌 야생 길에 조난자를 구출해야 한다가나 하는 등의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몇 번씩 있었다.

결론적으로, 용기를 덕목으로 성장시키고, 강인함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신체적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였다.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그저 공공의 안전망을 책임

2) 1983년 4월 3일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인수봉을 등반하던 대학 산악부 소속 학생 11명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조난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7명이 사망하면서 서울 경찰청에서는 북한산과 도봉산에 산악구조대를 창설하는데 본 웹툰은 당시 상황과 산악구조대의 일지를 담고 있다.

지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두고서 신체를 너무 혹사한 것이었다. 양쪽 무릎의 연골은 연화증이 생겼고, 걷기만 해도 엄청난 통증이 뒤따랐다.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사실, 선임 대원들을 포함하여 구조 대장님은 몸이 무리해서까지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었다. 만일 그들이 이야기 했던 조언들을 들었더라면 오늘날까지 후유증이 이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렇다면 왜 필자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일까? 분명, 당시 필자 스스로도 무리할 경우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본다면 '기개'가 완전하게 '용기'로 전환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 시기에는 무시케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에 고착화 되었던 것 같다. 만일 무시케가 조화롭게 작용하였다면, '기개'가 좀 더 유연하게 '용기'로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4 대학교 무시케와 짐나스티케의 조화기 그리고 현재

신체적 부상을 갖기는 하였으나, 필자는 '잘' 전역하였다. 전역 후에는 절제된 삶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에 민주적 주체처럼 방탕한 삶을 살기는 하였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무시케(음악)를 다루기 시작했다. 청소년기에 하나뿐인 가족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부 완전히 종결하였다. 끝내 포기하지 않고서 무시케를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시케는 그 전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듣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하여, 가급적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려고 애썼으면 특히나 좋다고 여겨지는 '클래식'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짐나스티케에 치중한 삶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이기에 부드러움이 잔잔히 삶 속으로 스며들었던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악하고 거만한 자 앞에서는 용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부도덕함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에는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인과는 감정적으로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타인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연민과 공감력이 많이 발달하였다. 사실, 중학교 시절에서 언급하였듯 필자는 타인이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했다. 필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비하면 타인이 어떻게,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선 자기 연민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무시케의 선율이 몸 안에 흘러들을 때쯤, 짐나스티케도 다시 시작하여 조화를 이뤘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면서부터, 실내 활동으로만 국한되어 몸이 느려지고 게을러짐을 느꼈다. 그렇기에 한적한 시간과 같은 새벽 시간대에 헬스장에 꾸준히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날에는 집과 야외 운동장을 통하여 심신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현재는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이용하여 정신적 수련과 각성을 도모하고, 외유내강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목표로 하고 노력하고 있다.

3. 결론

사실, 본 책과 글을 쓰기 전까지는 음악과 체육이 필자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당시의 시간들을 짚어보면서 생각해보니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특정한 장르를 고집한다는 것이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학과 시가, 연극 등이 이상국가에서 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보는가가 왜 중요한지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